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승효상



건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내가 믿기로는 그 건축물이 서는 땅이다. 이 땅과 관련한 '지문'이라는 단어가 요즘 내 건축의 중요한 화두며, 지난 일년 동안 써온 이 칼럼의 주제이기도 했다.

지난 글을 통해 나는 서양과 우리의 도시에 대한 차이점 역사적 맥락을 통해 설명했다. 서양인들은 도시를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이를 평지에서 실현했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땅을 먼저 이해해서 그 생리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으며, 그 맥락을 다치지 않도록 가만히 마을의 구조를 엮고 쉬는다고 했다. 지맥과 산수, 명당이 그런 말이며 배산임수가 그런 연유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로마군단 캠프가 유럽 중도도시들의 원형으로서, 표준화된 도시는 결국 땅과는 무관한 다이어그램이었으며, 그 관습이 르네상스 시절, 더욱 다이어그램적인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 그들 도시는 반드시 평지에 세워졌다고 했다. 또한, 20세기 들어 세워진 수많은 신도시들도 차별적 지역지구제와 계급적 도로망을 그린 평면의 도시여서, 평지의 그 도시들은 정체성을 갖기 위해 랜드마크라는 인공시설물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산과 계곡과 물길로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 놓은 땅 위에 지어지는 우리의 마을은 이미 공간적이며 입체적이다. 랜드마크는 인공적인 게 아니라 자연의 산세와 물길에 이루는 풍경이었고, 그 속에 자리하는 집이 땅과 밀착되지 않으면 오히려 죄스러운 것이었다. 우리의 삶은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으로, 인간은 거주한다

거기에 잠시 기대어 살 뿐이며, 집의 수명이 다하면 주된 재료인 흙과 나무는 그대로 다시 땅으로 귀속되어 자연과 합일되는 이치였으니, 자연을 깔고 봉개며 세우는 서양의 집과는 그 근본이 다른 것이다. 터무니라는 말이 있다. '터-무늬'에서 파생된 이 말은 말 그대로 터에 새겨진 무늬를 뜻한다. 터무니없다는 것이 근거 없다는 말이고 보면, 터에 새겨진 무늬를 뭉땅 지우고 백지 위에 다시 짓는 재개발 같은 사업은 터무니없는 사업이요, 그 결과로 얻어져 관에 박은 아파트에 사는 삶은 터무니없는 삶이 아닐까. 그래서 도시의 유목민이 된 우리의 삶은 떠돈다.

이 터무니를 한자말로 지문(地紋)이라고 고치고, 자연의 무늬 위에 삶의 기록을 덧대어지므로 문양 紋을 글 文으로 바꾼 게 地文이다. 땅은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은 자연이 그 생성과 변화를 기록하였고 더러는 인간이 그 글 곡된 삶을 통하여 사건과 변천을 기록한 역사다. 그래서 땅마다 다 다르며 그 내용도 마치 인간의 손글과 지문처럼 모두 다르다.

뿐만 아니다. 땅은 여전히 우리의 새로운 기록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땅의 생기를 중시했고 풍수오행을 논하며 조심스레 집을 지었던 것이다. 기공식을 서양처럼 땅을 부순다

그 이야기의 곁에 맞추어 지금 필요한 희망적 삶을 덧대어 그리면, 설계가 물 흐르듯 끝나게 된다. 장소가 원하는 내용을 경청하고 그를 시각화하는 일, 이게 건축설계요 도시설계여야 한다.

급기야 서양이 땅의 생리를 눈을 돌렸다. 우리가 서양화가 근대화인 줄 착각하고 서양의 미학을 추종하고 있는 사이, 그 미학의 한계에 봉착한 그들은 도시와 건축의 윤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분열된 공동체의 문제를 심각히 겪은 그들이 더 그 극복을 위해 거주와 방식을 다시 성찰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거주한다는 것은 개인과 세상과의 평화로운 조화"라고 했으며, "거주함을 통해 우리는 존재하며, 그 거주는 건축함으로 장소에 새기는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 구태한 서양미학의 미망에서 이제라도 벗어나, 새 역사 창조한다며 터무니를 강고히 지우려 우리를 떠돌게 한 비뚤어진 방식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금수강산 속에 덧대어 온 아름다운 우리의 터무니를 지키는 일은 우리를 존재시키고 지속하게 하는 방식이며, 우리 삶의 존엄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올 한 해의 칼럼을 마치며 하이데거가 인용한 윌터의 시구를 덧붙이고 싶다. 마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옛 풍경 같아서이다. '시적(詩的)으로, 인간은 거주한다.' <건축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시교육청 교원 채용 비리 묵과할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이 공립교사 특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바꿔치기로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과 학기술부는 최근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런 비리를 확인했으며, 교육감 등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 A고 5명, B고 1명 등 6명이 공립 교사로 특채됐다고 한다. A고 교사 5명은 당시 전교조 소속이었으며, 시교육청은 작년 11월 교육감 취임 후 채용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과 A고는 특채인 채용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 협의도 모자라 A고 법인 산하 교사들을 '들러리'까지 세워 경쟁률을 2대1로 맞추기까지 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교육청은 전형과정에서 내정 교사가 아닌 들러리 교사가 합격 되는 착오가 일어나자, 채점표를 재작성해 내정자

를 최종 합격자로 바꾼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교육감은 이 특채 과정의 최종 결재를 관장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아무리 보은인사라 하더라도 정의와 양심을 가르쳐야 할 교육현장에서 이런 의도적인 비리를 자행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더욱이 전교조 출신으로, 평소 정의와 청렴을 강조해온 장 교육감이고 보면, 수사 결과에 따라 치명상은 물론 광주 교단도 크게 흔들리게 될 게 뻔하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과부의 감사 내용에 대해 맹백히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이다. 현재 드러난 것 만으로도 씻을 수 없는 중대 비리임을 각성하고 교육감 관련 여부, 관계자 문책, 대시민 사과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교과부와 수사 당국도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그것도 감독관청인 교육청이 연루된 비교육적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고성장기업 전국 최하위, 참담한 지역 현실

광주·전남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고성장기업 비율이 전국 대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성장기업 중 종사자 수 1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이 지역에 한 곳도 없다고 한다. 지역기업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반응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고성장기업 비교' 자료에 따르면 종사자 10인 이상 전국 사업체 4만3024개사 중 고성장기업은 6.6%인 2872개사로 조사됐다. 고성장기업은 종사자 10인 이상으로, 3년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 20% 이상 달성한 기업이다. 이 가운데 광주는 52곳, 전남은 64곳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권인 13·11위에 그쳤다. 종사자 50인 이상의 중기업 비율 역시 광주 1.93%, 전남 1.57%로 전국 평균(4.64%)에 크게 밀린다. 고성장기업의 75% 이상이 20인 미만의 소기업이라고 하니 양질의 일자

리가 창출될 리 만무하다. 인구 유출과 지역 낙후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역 내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의 역외 유출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망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며, 지자체와 지역민이 합심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사문화의 선진화, SOC 시설 확충,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과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 차별화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도 말로만 일의 상생이니, 국가 균형발전을 떠먹일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기업의 지역 이전 유도 등 실질적인 육성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문성준

벌써 겨울이 한가운데 있으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 지고 있다. 겨울철에는 활동이 제한돼 운동이 부족해 낙상이나 기타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다.

노인성 척추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흔히면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척추뼈에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로, 골다공증이 원인이다. 이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몸의 뼈는 칼슘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단단한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뼈를 구성하는 영양분인 칼슘과 비타민D, 마그네

새우등을 피하는 법

슘 등이 감소하면서 뼈의 강도가 약해지게 되고 따라서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척추 뼈나 고관절, 손목 등에서 쉽게 골절이 일어난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서는 직사각형의 척추뼈가 쐐기모양처럼 납작해지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골절이 발생하면 누웠다가 설 때나, 앉았다가 설 때 등 자세를 바꿀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며,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등이 앞으로 굽는 노인성 후만증으로 진행된다. 새우등 모양이 되거나 꼬부랑 할머니처럼 척추가 변형되는 것이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치료는 과거에는 장기간 침상안정을 하면서 약물요법을 통한 통증조절이 대부분의 치료방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척추성형술등의 방법을 통해 부러진 뼈를 안정시키고 통증을 치료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결국은 골다공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압박골절의 위험도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골다공증의 예

방에는 균형 있는 식사습관, 적당한 운동, 금연, 절주 등이 필요하며 칼슘이 많이 포함돼 있는 유제품이나 요구르트를 많이 섭취하고 비타민D의 공급을 원활히 해주면 도움이 된다. 또한, 골다공증이 있는 분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기적인 골밀도검사 및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매일 일정 시간 동안 걷는 것이 허리에 좋다. 걷는 것은 허리를 유연하게 해주고 허리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 빠른 걸음으로 30분씩 하루에 2번을 하는 게 좋다. 걸을 때는 허리를 쭉 펴고 양 어깨를 뒤로 퍼준 상태에서 균형감 있게 걸어야 한다.

실외에서 타는 것인데 실내에 고정된 것이든 자전거 타기는 허리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키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척추관절을 유연하게 만드는 효과가 크므로 이미 척추관이 좁아져 통증이 심한 척추관협착증 환자나 척추관절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운동이다. 다만 허리디스크 환자나 좌골

신경통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것이 해로우므로 자전거를 타는 동안 자주 허리를 펴주거나 엉덩이를 들어주는 것이 좋다.

요통으로 병원을 찾기도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만성요통 환자들이나 의자에 앉은 채 지내는 시간이 많은 이들에게 특히 좋은 운동이 바로 체조다. 허리의 유연성은 물론 평소 쓰지 않던 근육까지 고루 단련시킬 기회가 되며 비뚤어진 자세를 바로잡는데도 효과적이다.

체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하나하나의 동작에 최선을 다해 가능한 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다. 많은 동작을 빨리 해주려는 것보다 적은 동작을 천천히 하는 것이 운동효과가 훨씬 크다. 목부터 발끝까지 고루 풀어줄 수 있는 체조를 선택해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하루에 30분 정도 해주면 된다.

산을 오르내리는 게 허리근육을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주말마다 등산을 하는 것이 좋으나 높은 산은 피하고 산길이 미끄러운 계절도 피하는 게 좋다. 너무 높은 산은 오히려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산길에서 미끄러지면 허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우리병원 원장>

기고



박봉식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흔히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아는 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13월의 보너스'로 부른다.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간 받은 임금 총액 대비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이다. 매월 봉급 수령시 납부한 세金的 합계와 비교해 초과, 교육비 등 각종 지출을 공제한 후 세금을 재계산해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국제정 홈페이징,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

연말정산 환급금 챙기기

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근로자는 소속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대행해 주고 있어 근로자 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없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을 공제받지 못해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연말정산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울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개인·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자금, 장기주택저축, 임차주택 월세 등에 대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제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확인해 즉시 누락된 자

료가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해야 한다.

또한, 올 9월에 개정된 세법과 이에 해당되는 공제사항, 금융상품 등을 살펴보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계획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2011년 귀속분 연말정산과 관련 주요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상향.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명 초과시에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둘째, 일부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 지정기부금중 일부의 공제한도가 20%에서 30%로 확대되고 특례기부금이 폐지되었으며, 공제대상 범위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것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셋째, 주택자금, 주택담보대출 관련 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간 1500만원이며,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급여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넷째, 세계화협이 있는 연금상품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펀드,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통틀어 1인당 총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개인의 직업과 소득, 납부된 세액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천차만별이니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가 본인의 연말정산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개정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 보다 많은 근로자가 '13월의 보너스'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지방국제청 신고분석2과장 서기관>

FTA 대비 우리 농산물 브랜드화 전략 필요

우리에게 식량이라는 의미는 과거 어렵던 시절의 보릿고개부터 시작해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녹색혁명이 시작됐고 통일벼로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다.

그 후로는 식량과 곡물의 자급자족을 가져 오면서 삶이 윤택해졌다. 그래서 지금은 식량이 그저 배고픔을 잊는 수준이 아니라 몸에 이로운 것을 골라서 먹고, 체질에 맞게 골라 먹는다.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그런데 FTA의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나라 이제는 농산물도 명품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술에 국화꽃을 넣은 菊花香酒, 장뇌향을 넣은 보약 김치 등 이런 것들이다. 우리 농산물도 고급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농산물을 브랜드화해서 키운다면 세계적 명품 농산물이 될 수도 있다.

소비자들에게 귀한 농산물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차별화된 농업의 명품화가 시급하다.

유럽의 커피, 일본의 사케는 농산물을 이

용해서 한 국가의 문화가 됐고 전세계 시장을 장악했다. 우리나라도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고유의 소재가 무궁무진하다. 민속주와 부침개가 한 예다.

중국의 보이차를 보자. 불로장생, 만병통치의 중국 명차라는 소문과 함께 부르는 게 값이다. 오죽했으면 보이차를 말이나 당나귀에 싣고, 티베트나 네팔, 인도에 수출한 길을 차마고도(茶馬古道)라고까지 불렀을까.

요즘 한식의 세계화가 한창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 농산물과 이를 활용한 가공품이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많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보라·광양시 도이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전세계적으로 기업들만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분노(반 월가 시위)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30년 사이 미국인 상위 1%의 소득은 세배로 증가했지만 하위 20% 소득은 18% 늘었을 뿐이고, 6명 가운데 1명이 빈곤층에 속해 있다. 재정위기의 유럽도 실업률과 물가는 뛰었는데, 나라 빛을 줄이다 보니 복지예산도 깎여 살림은 더욱 더 어렵게 됐다.

시민들은 경제가 성장해도 빈부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실에서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OECD는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부자증세'를 제안하고 있다. 세계적인 감부들까지도 부자들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자산 45조 원의 세계 최고 부자인 워렌 버핏은 "근로 소득세가 저 계산해도 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들보다도 나에게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백만장자 138명은 세금을 더

울리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프랑스 로레알 상속녀 베랑구르와 이탈리아 페라리 회장 등 유럽의 부자들도 부자증세에 동참하고 있다.

그동안 세금을 줄여주던 부자들 투자자들은 세배로 증가했지만 하위 20% 소득은 18% 늘었을 뿐이고, 6명 가운데 1명이 빈곤층에 속해 있다. 재정위기의 유럽도 실업률과 물가는 뛰었는데, 나라 빛을 줄이다 보니 복지예산도 깎여 살림은 더욱 더 어렵게 됐다.

시민들은 경제가 성장해도 빈부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실에서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OECD는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부자증세'를 제안하고 있다. 세계적인 감부들까지도 부자들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자산 45조 원의 세계 최고 부자인 워렌 버핏은 "근로 소득세가 저 계산해도 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들보다도 나에게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백만장자 138명은 세금을 더

/최재호 경제부처장 l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광)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재무부 2200-62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